



2018년 연구결과 소개 ①

인천시 베이비부머 실태 및 욕구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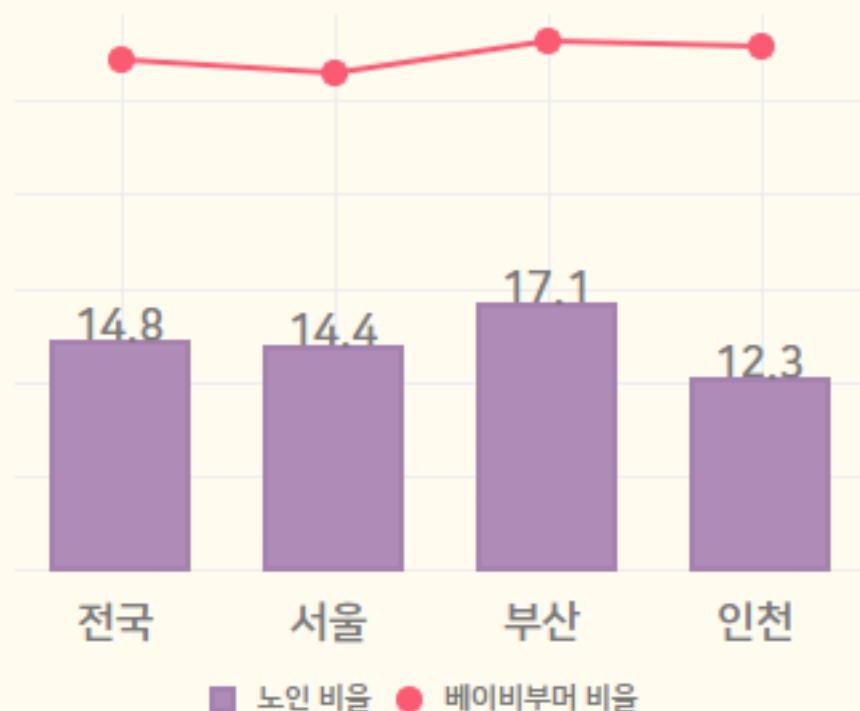
(재)인천여성가족재단 ·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

2020년

베이비부머의 선두세대인 1955년 출생자가 노년기에 진입하게 되는 시기



합계출산율이 3.0 이상인 연령대가 일정기간 연속적으로 유지된 인구 코호트
여기서는 1955년에서 1974년 사이 출생자를 의미합니다.



✓ 인천시는 노인 비율에 비해
베이비부머 비율이 높은 도시

(2018년 12월 기준/주민등록인구현황)

✓ 우리나라 노인의 빈곤율과
자살률은 OECD 가입국 중 높음
→ 베이비부머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위해 노후준비가 필요

{ 어떻게 늙어 갈 것인가? }

노화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노인을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존재로 인식하기보다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존재로 받아들이는 것



활동적 노화

연령에 따라 삶의 질을 증진하기 위해 건강, 사회참여, 생활보장의 기회를 극대화하는 과정



건강노화

노년기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기능적 건강을 발전하고 유지하는 과정

인천시 베이비부머의 노후준비를 돕기 위해
건강·활동적 노화의 틀을 기반으로 한 설문조사 실시

조사기간 2018. 05. 14 - 06. 15 (4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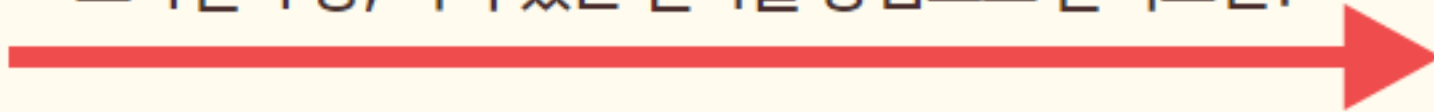
조사대상 인천시 거주 베이비부머 1,907명 (95% CI, $\pm 2.4\%$ p)

표본추출 제곱근비례배분(지역) 및 비례배분(성별, 연령) 혼합

조사방법 일대일 면접조사(전기 베이비부머) 및 온라인 조사(후기 베이비부머) 병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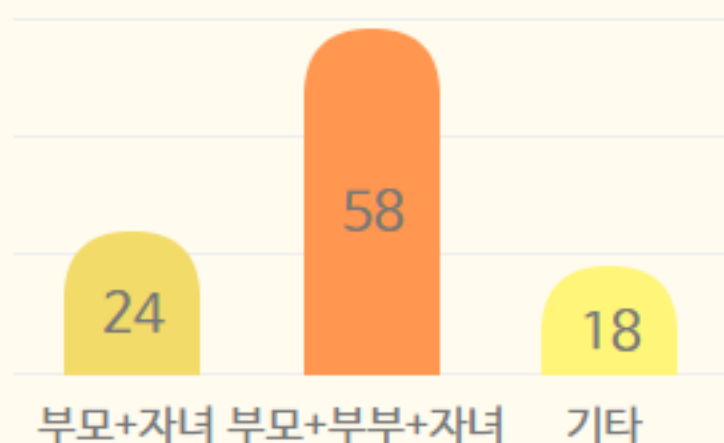
조사내용 일반적 현황, 가족, 사회적 활동, 건강, 주거 및 지역사회인식

조사결과 중, 의미 있는 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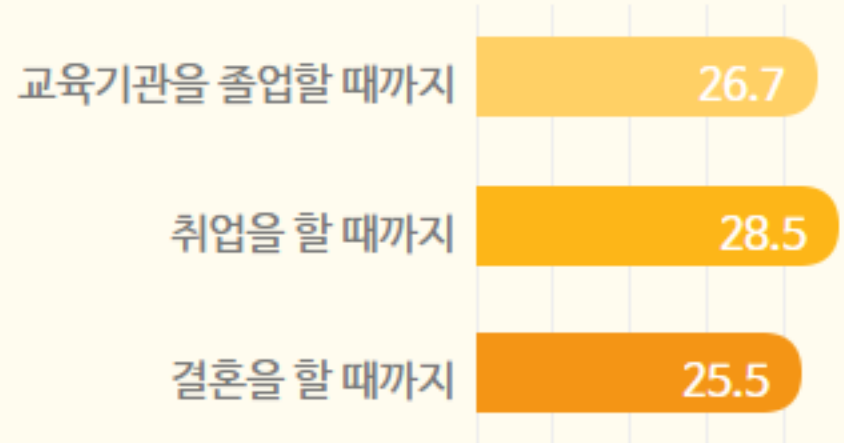


베이비부머는 부모부양과 자녀부양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는
마지막 세대, 소위 '깁 세대'로서의 이중부담,
특히 금전적 부담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족구성 (n=1,9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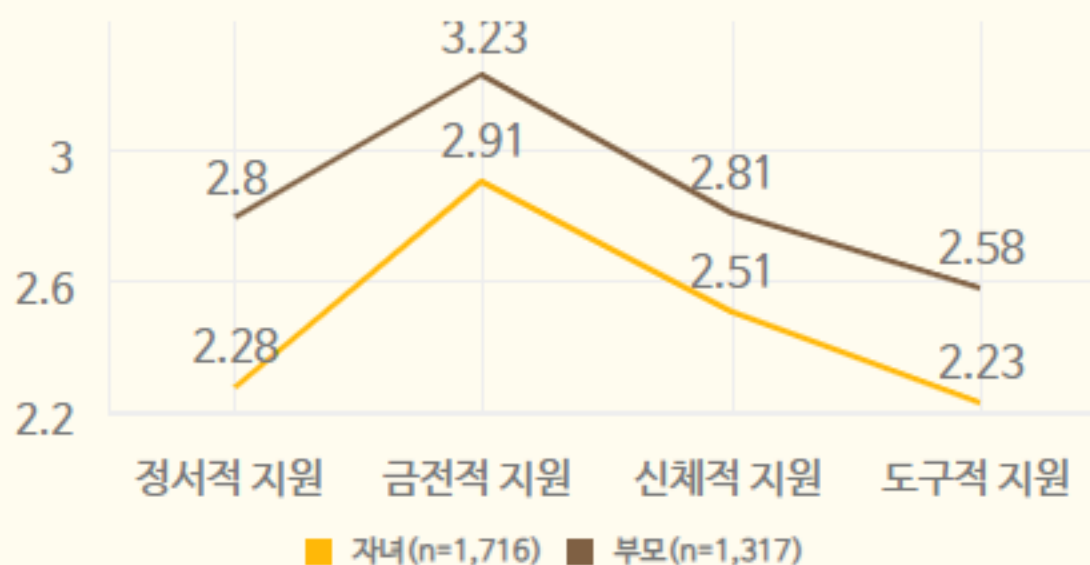


자녀부양 책임시기 (n=1,9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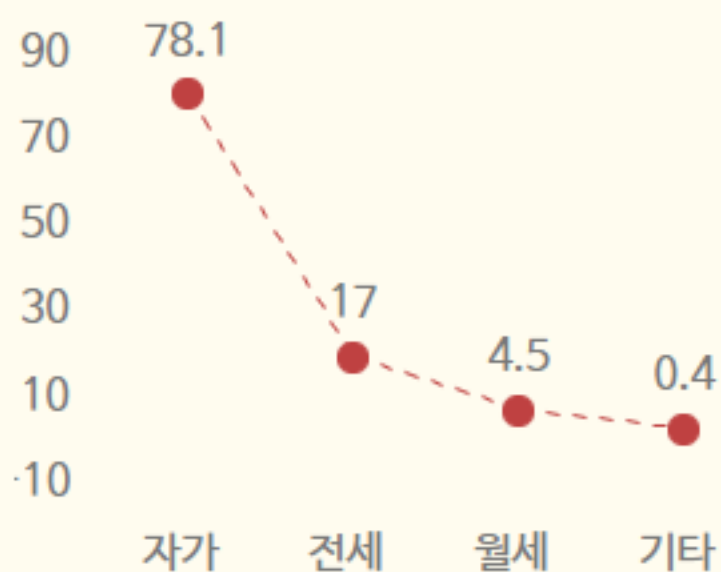


자녀 지원 부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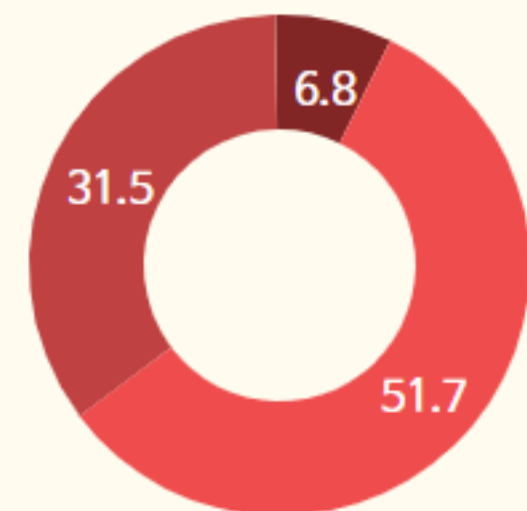
*5점 만점/높을수록 부담



반면 자기소유의 비율과 학력이 높고,
또래에 비하여 건강하다고 인식하였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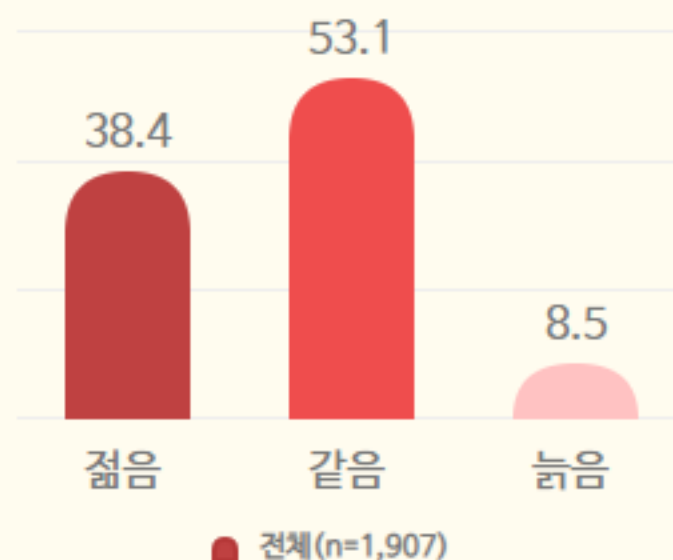


거주형태(%)



■ 중졸 이하 ■ 고졸 ■ 전문대졸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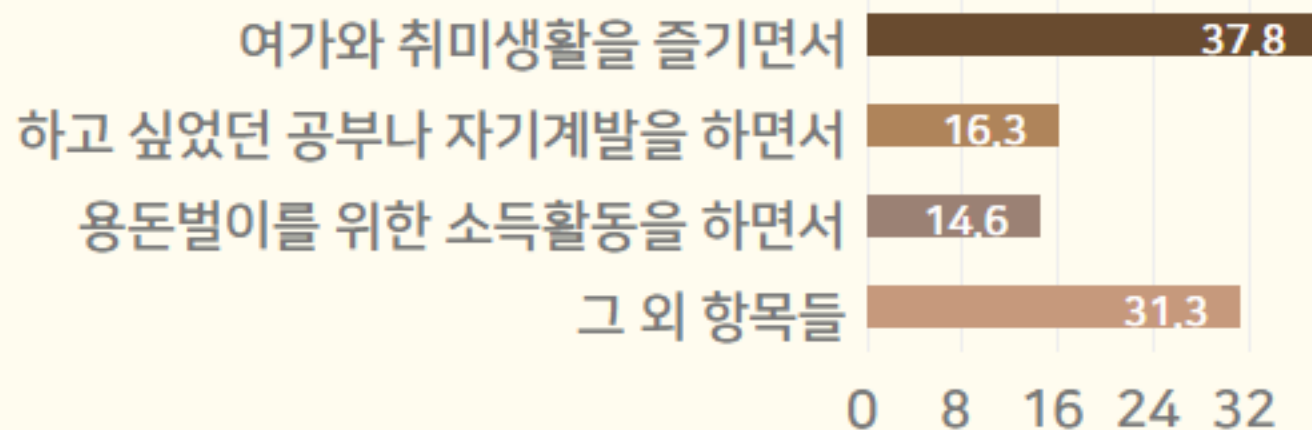
최종학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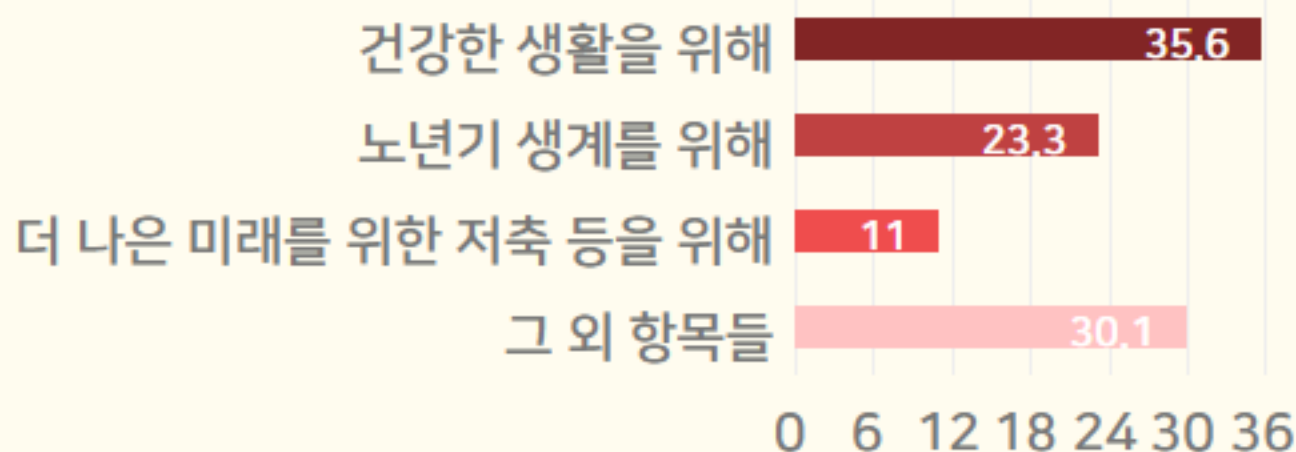
■ 전체(n=1,907)

또래와 비교한 건강수준(%)

노후에 여가활동을 영위하고, 건강한 생활을 위해
노년기 경제활동 참여를 하겠다고 응답하여
'액티브 시니어(active senior)'의 특성을 드러냅니다.



■ 노년기 희망 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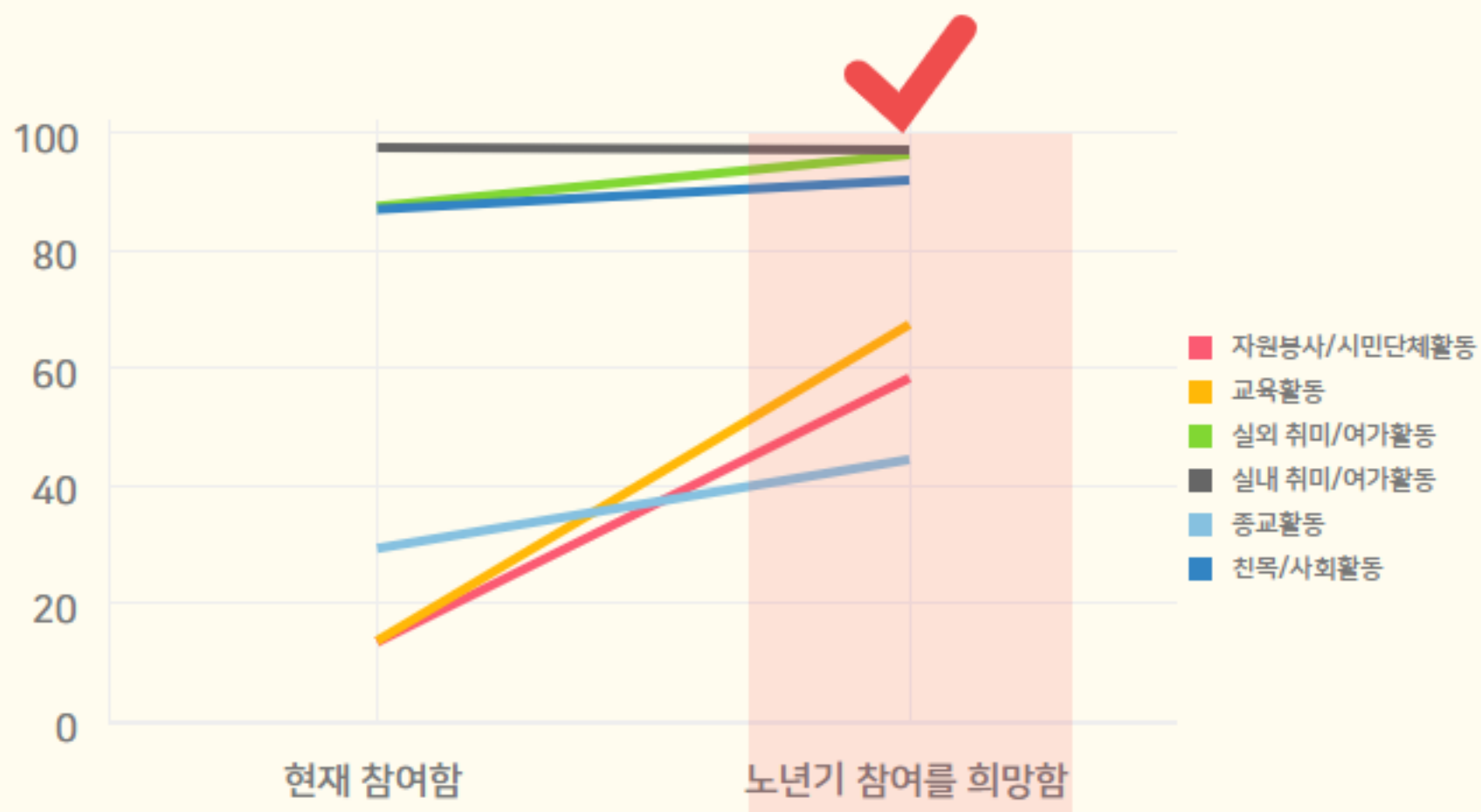


■ 노년기 경제활동 참여목적

Two-track의 서비스 지원방안 필요

이와 같은 양면성을 가진 결과는
베이비부머 개인에게 경제활동과
여가를 양립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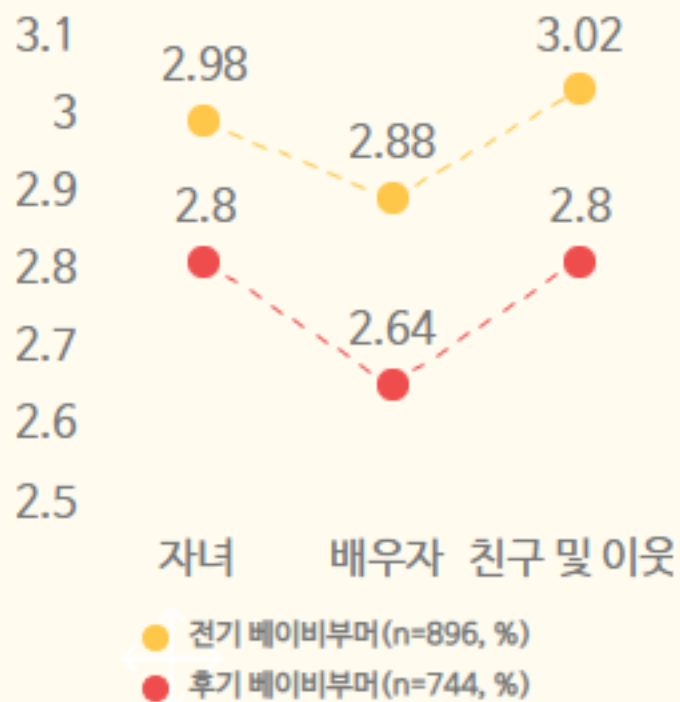




베이비부머는 현재보다 노년기에
사회활동에 참여하기를 희망합니다.
특히 **자원봉사 및 시민단체활동**(44.5%p),
교육활동(53.5%p)의 차이가 컸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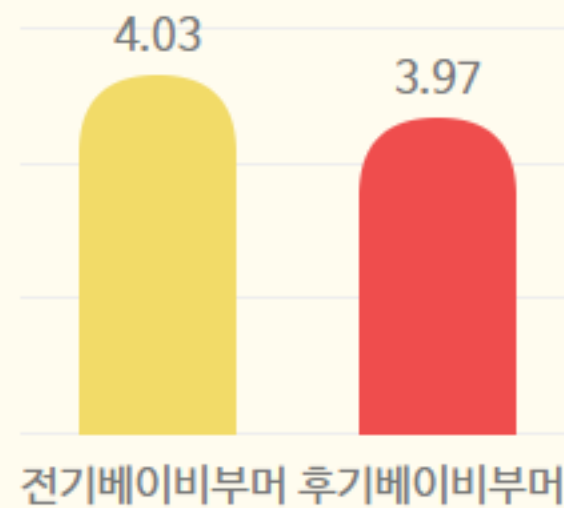
>> 향후 자원봉사활동 및 평생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서비스 제공**이 필요!

세대 간 비교 결과를 보면,
연령이 낮은 집단에서 가족 및 친구에 대한 중요성을
낮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사회적 지지

*5점 만점/높을수록 지지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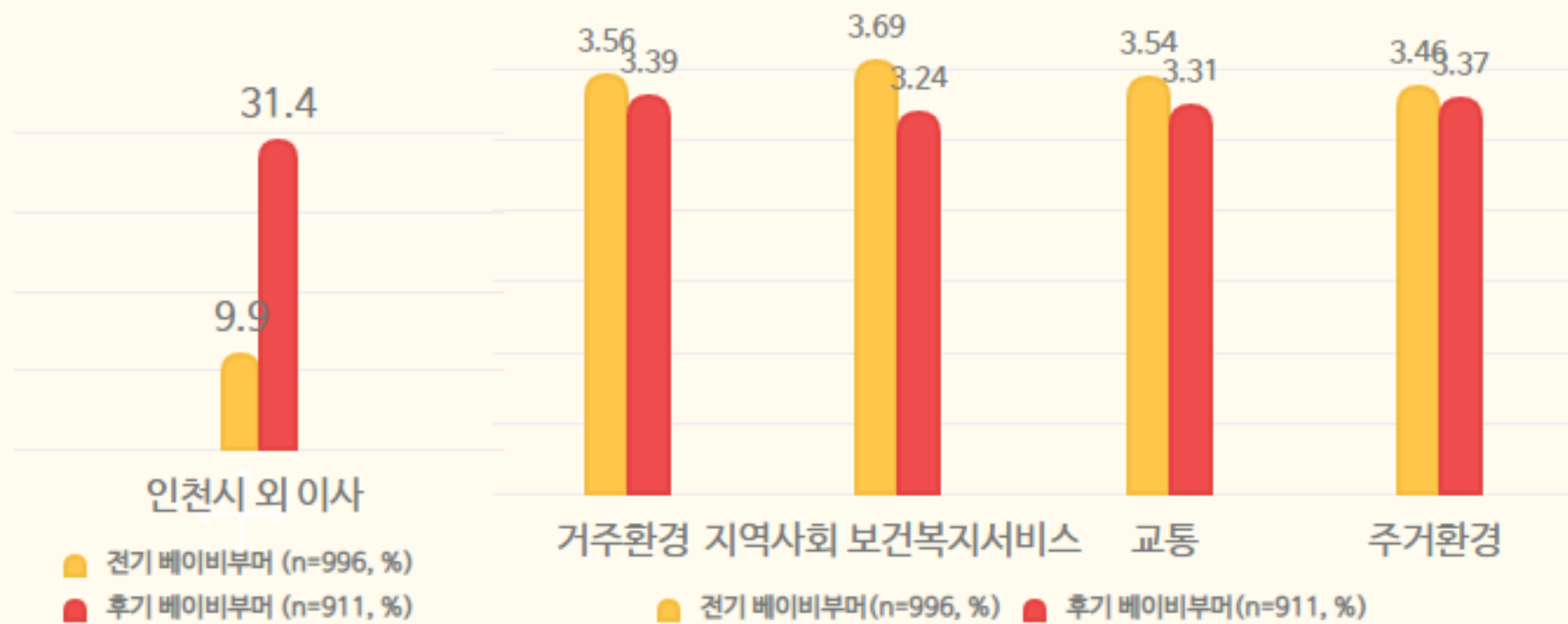


가족·친구와의 친밀도 중요성

*5점 만점/높을수록 중요함

→ 선행연구 결과 은퇴 이후 노인은 가족중심 경향을 보이는데,
 가족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중년기부터 긍정적인 가족관계를
 유지하고 노년기 변화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관계 재정립 교육이 요구됩니다.

후기 베이비부머는 전기 베이비부머에 비해 노년기 정주율 및 인천시에 대한 만족이 낮았습니다.



거주지 이동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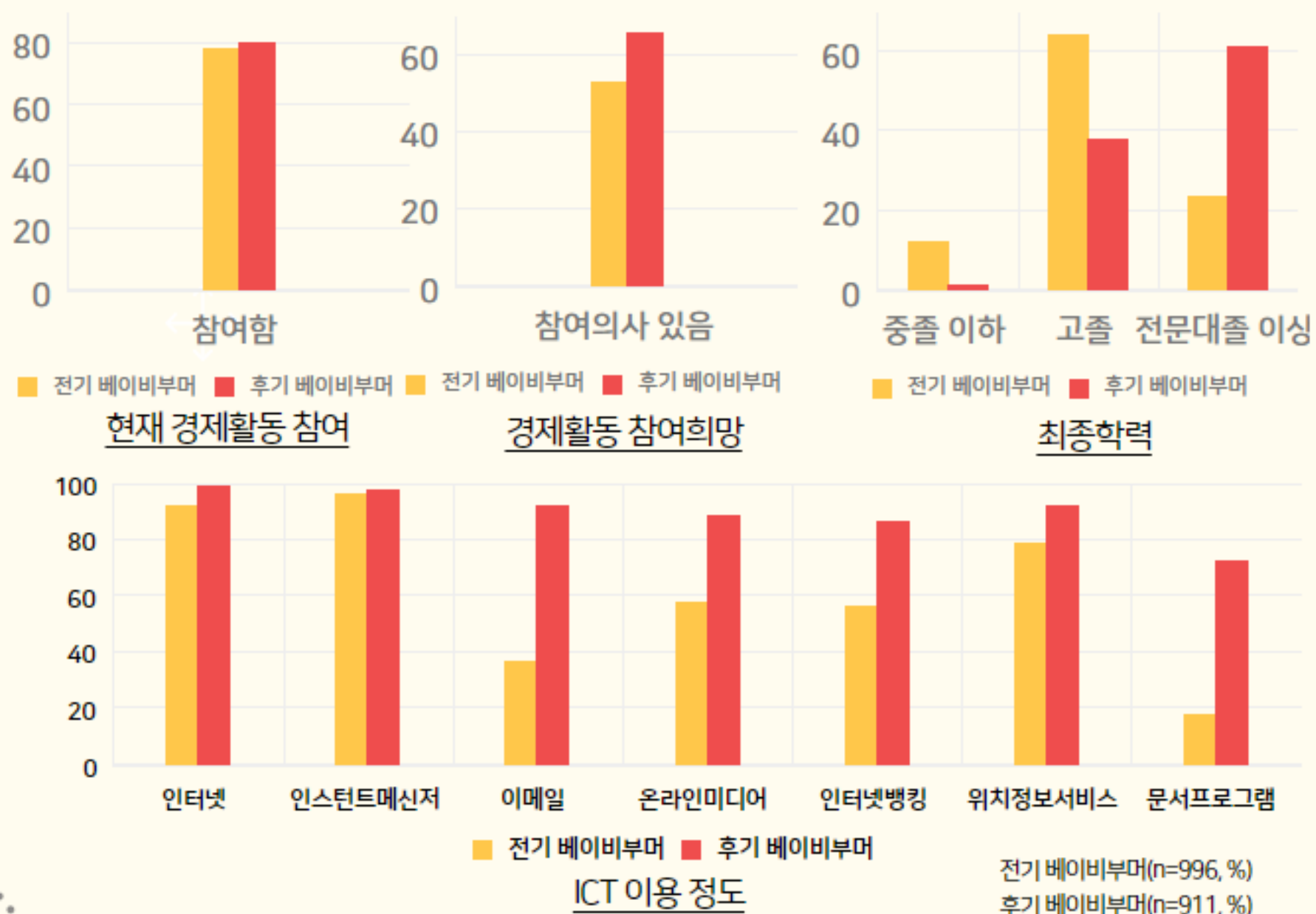
고령친화환경 인식

*5점 만점/높을수록 친화적임

→ 노인이 살기 좋은 도시, 즉 고령친화도시를 통해
베이비부머가 계속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후기 베이비부머는 경제활동 참여를 희망하는 비율이 높고,
학력 및 ICT 이용자율, 현재 일하고 있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 단순 노동 중심의 노인일자리를 보다 세분화·고도화 한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 창출이 필요합니다.





- ☑ 베이비부머는 집단의 규모가 큰 집단으로,
수적 우세를 통해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 ☑ 향후 정기적 조사를 통해 베이비부머의 실태 및 인식을
장기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 이를 통해 베이비부머가 노년기에 잘 적응하고,
가능한 건강하게 노년을 영위하도록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자료는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inlife.or.kr>



원 보고서: 인천시 베이비부머 실태 및 욕구조사(양지훈 · 권미애, 2018)



인천여성가족재단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